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국내외 정세, 대전환을 탐색하는 2017

2017. 01. 23 | 박세길_새사연 이사 | newroad2015@naver.com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는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익숙해 있던 규칙과 경향들이 심각하게 흔들리거나 무너지고 있다. 기존 틀로는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7년은 이처럼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는 전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2017년은 낡은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다. 향후 전체 판도에 광범위하면서 심도 있는 영향을 미칠 중요한 몇 가지 지점들을 전후 맥락에 비추어 점검해보고자 한다.

세계정세

1) 난파 위기의 세계화

2016년에 발생한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세계정세의 불확실을 키우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이 향후 세계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려면 먼저 그 발생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공통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도한 나라이다. 그런데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계화로부터 발을 빼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EU 즉 유럽 단일시장으로부터의 철수이다. 트럼프는 자유무역 반대 기조를 앞세워 당선에 이르렀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세계화는 자유무역을 거의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로 이루어졌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화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지역협정, 한미FTA와 같은 쌍무협정 등은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미국과 영국이 세계화를 적극 선도한 것은 제조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금융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은 바로 미국과 영국 두 나라 금융자본의 전 지구적 지배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과 영국은 금융자본을 빨대로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여 자국 안에 쏟아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징표로서 1990년대 10년 동안 미국의 종합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두 나라 국민들은 주가 상승 등으로 막대한 금융소득을 거머쥌 수 있었다. 덕분에 중산층도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는 거품에 의존하는 지속가능성 없는 시스템임이 드러났다.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0년 월가 주가대폭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잇달아 발생했다. 금융자본을 앞세워 세계의 부를 끌어 모으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무역 흐름을 타고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한 중국 등이 선진국 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했다.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며 주가 폭락과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중산층은 직격탄을 맞은 상태였다. 반면 추가적인 금융 소득은 대폭 줄었다. 시장 잠식으로 공장 폐쇄가 늘면서 실업자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진국 사회구조를 상징했던 두터운 중산층이 빠르게 붕괴되어 갔다.

금융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유난히 높았던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바로 이런 형태로 집중적인 타격을 입었다. 두 나라가 가장 먼저 세계화 흐름에서 발을 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동안 진행된 세계화는 평가를 떠나 세계 질서에 일정한 규칙을 부과해 왔었다. 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그 규칙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적과 우방도 중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장 논리를 뛰어넘어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겁박하고 있으며 각종 무역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신설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와 미 무역대표부 수장에 잇따라 반중(反中) 인사를 지명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무역정책에서 중국과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급 시장을 품고 있다. 미국의 행보는 곧 세계 질서를 송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세계화는 암초에 부딪혔다. 대외의존성이 높은 한국으로서 심각한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세계화 흐름을 타면서 무역 규모를 빠르게 확대시켜 왔다. 최근 뒤로 밀려나고 있지만 한 때 수출 규모 세계 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GDP 대비 수출의존도도 50퍼센트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시급히 세계화 이후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2) 신냉전 격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러시아가 가세하면서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1980년대 미국과 중국은 함께 손을 잡고 소련에 대항했다. 반소련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세계는 미국을 유일한 정점으로 통합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가속화시키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중국은 대미 수출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했고 미국은 이를 통해 무역적자를 보충했다. 그런 식의 ‘달러 사이클’을 바탕으로 두 나라는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은 자신을 유일 정점으로 하는 세계질서가 오랫동안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중국은 견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빠르게 실력을 키우면서 미국의 지위를 넘볼 수 있는 위치에 섰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G2로 부르며 대등하게 취급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GDP 규모는 미국에 바짝 다가섰으며 머지않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유인 우주왕복선을 띄우는 등 우주개척에서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항공모함을 진주시키는 등 군사대국의 길에도 성큼 발을 내디뎠다. 중국은 대국굴기를 선언하며 강대국의 길을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며 중국 견제를 군사 외교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깊숙이 진입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지닌 핵잠수함을 전격 배치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발 무역 분쟁이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맞대응으로 시진핑은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이해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다툼을 넘어 세계 질서의 향방을 둘러싼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영토 분쟁, 역사 분쟁의 형태로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나라이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베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회담을 갖기도 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아시아의 일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남아서 중국을 견제하도록 사력을 다해 임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에서 이해관계가 확연히 일치되고 있다. 미일 밀월 시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는 서유럽 세계와 각을 세우고 미국과도 거리를 두는 등 고립주의 길을 가는 것 같으면서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영향력 세계 1위 인물도 러시아의 푸틴이다. 러시아는 2016년 한 해 동안에 발트해 군사훈련으로 나토를 견제했으며 터키와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시리아를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었다. 중국과는 정상회담을 갖고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C) 형성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날로 강화되는 미일동맹에 맞서 중러동맹을 가일층 강화한 것이다.

미일 남방동맹과 중러 북방동맹이 격돌하는 신냉전 기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지난날 우리는 이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비운을 겪은 적이 있다. 분단의 상처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두 진영 사이의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상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냉전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전략적 지혜가 절실히 요청된다.

3)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

2017년 새해 벽두 언론 매체를 장식한 대표적인 이슈의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지구 전체의 경제 지도와 인간 삶을 통째로 바꾸어놓을지도 모를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 오고 있는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영국을 시작으로 일어난 산업혁명을 가리킨다. 증기기관 발명을 시작으로 초기 공업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테일러-포드 시스템 도입으로 노동생산성 혁명이 지속되었다. 도요타자동차의 린 생산시스템은 그 정점에 해당한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터넷으로 대표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되어지는 IT산업의 확산이었다. 탈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VR) 등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거듭된 진화의 결과이지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를 넘어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기의 바둑 대결로 유명해진 알파고는 이를 잘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에 적용된 결과이다.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기계들이 독자적으로 인식과 대응 능력을 획득한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간 자동차는 독자적인 대응 능력이 없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 몫이었다. 바로 그 인간의 능력까지를 획득한 게 자율주행차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태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17에 참가해 자율주행차 아이오닉의 시험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현대자동차는 2020년부터 이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운전자 없는 무인 택시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축복이 될 수 있고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인간 노동에 의지하던 상당수의 일자리들이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비교적 단순한 작업의 경우는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칠 확률이 높다. 이 분야 권위자인 옥스퍼드대학교의 칼 프레이와 마이클 오즈번은 2013년에 진행한 연구에서 미국 직업 가운데 47퍼센트가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경제포럼(WEF) 또한 새로운 기술의 부상으로 202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 가운데 51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백악관은 “AI로 인해 미국인 10명 중 4명의 생계가 위협해진다”며 “임금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더 높다”고 경고했다.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는 의미다.

4차 산업혁명이 인류 앞에 던진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소수만이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 크게 이익을 내는 반면 다수는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 최종 결과는 시장 붕괴로 공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인간은 기존 노동을 기계에 맡기고 노동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한층 창조적인 작업이 집중할 수 있다. 과연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지만 그 영향에는 직접적으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대체 효과로 인해 2025년 약 70퍼센트에 이르는 1800만 명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파멸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국내정세

1)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 정치

촛불시민혁명은 위대한 시민의 힘을 입증했다. 그 힘은 국회로 하여금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시키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국민 속에서는 이미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다. 탄핵 추진은 그 의미가 단순히 박근혜 한 명의 정치적 퇴진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보수 세력 전체의 정치적 붕괴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1990년 3당합당을 계기로 전열을 정비한 보수 세력을 지탱한 것은 세 가지의 큰 동맹이었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지역동맹, 국가주의 세력과 시장 자유주의 세력의 이념동맹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50대와 60대가 손을 잡은 세대동맹이 그것이었다. 이 세 가지 동맹을 바탕으로 외연을 크게 확장한 보수 세력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다수파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보수 세력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경제 성적표가 스스로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간주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그것에도 한 참 못 미쳤다. 경제는 보수라고 하는 통념에 금이 간 것이다. 보수 세력 내부에서 동요와 이탈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4.13총선은 이점을 뚜렷이 확인해 주었다. 4.13총선은 대부분 관측자들의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보수 세력을 떠받친 세 가지 동맹에 균열이 일어난 결과였다. 지역동맹에서 부산경남이, 세대동맹에서 50대가, 이념동맹에서 자유주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시 시작했던 것이다.

힘겹게 버티고 있던 보수 세력에게 최후의 일격을 준 것은 이른바 최순실 사태였다. 최순실 사태는 보수 세력을 묶어주었던 신념 체계를 거침없이 파괴했다. 유능한 보수, 국가에 대한 개인의 충성, 권위와 안정감 등 보수 스스로 강점이라고 여겼던 것들 모두가 허상임이 드러난 것이다. 보수 세력은 공황 상태에 빠져 들었다. 보수를 보는 사회적 시선도 싸늘해졌다.

박근혜 탄핵 추진은 보수 세력을 해체 국면으로 몰고 갔다. 보수 세력은 박근혜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탄핵을 둘러싸고 사분오열되었으며 정치적 구심이었던 새누리당은 분당으로 치달으며 와해의 길을 걸었다.

보수 세력은 앞으로 상당 기간 혼미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재결집해 정세 주도권을 손에 넣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보수가 축적해 온 노하우들이 작금의 정세에서 대부분 쓸모없어져 버렸다. 과거의 성공에 취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한 결과였다.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며 정치의 중심축은 확연히 야권으로 이동했다. 올해 초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가 원하는 대통령 리더십은 진보가 64퍼센트, 보수가 26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퍼센트를 호가했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다. 촛불시민혁명은 야권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촛불시민혁명은 보수 세력 내부의 균열로 폭로전이 이어지고 여기에 분노한 시민이 거리로 나서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야권이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의 정국을 맞이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야권은 혁명적 지형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고와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수 세력의 붕괴는 진보의 주도 아래 박근혜 탄핵 세력을 최대한 포괄하는 통합의 정치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는 향후 수 십 년간에 걸쳐 한국 사회의 근본적 재구성과 한반도 통일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담보이다. 여기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제3지대의 향방이다.

현재 제3지대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손학규, 반기문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이전 투구 장이 되고 있다. 최대한 단순화해 보면 제3지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합리적 보수층까지를 흡수하는 진보의 확장 무대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일보> 등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그대로 '신보수연합' 창출의 무대가 되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기능하는가에 따라 한국 정치의 미래가 완전 달라진다.

복잡한 합종연회, 연대연합이 제3지대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매개가 되는 것이 개헌과 대선이다. 현재로서는 그 어떤 예측도 쉽지 않다. 상수는 없고 변수만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1 야당의 주류 세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결국 촛불시민혁명의 주역인 시민들의 이성적 대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촛불시민혁명에서처럼 시민이 여론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치권을 선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2) 사면초가의 한국 경제

지금의 한국경제를 멀리서 보면 마치 불난 집처럼 보일 수도 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빨간 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은 급락하고 각종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나마 외환보유액 3,720억 달러와 지난해 97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거시경제 관리의 방파제가 되어 주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경제를 사면초가에 몰아넣고 있는 네 가지 지점을 살펴보자.

첫째, 대외 환경 악화

한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2015년 매출액은 135조 원이었다. 이중 국내 판매액은 14.6조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90퍼센트는 모두 해외 시장에서 소화되었다. 한국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바로 그 수출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시장 잠식 등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시장에서 만만치 않은 복병을 만난 것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저임금과 광대한 시장을 등을 노리고 다투어서 중국에 진출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한 중국인들은 우수한 생산기술을 완벽하게 소화한 뒤 자기들 기업을 새로 설립했다. 그런 다음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은 물론 기술력까지 한국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파상 공세 앞에서 한국 기업들은 맥없이 시장을 내주어야 했다. 한국의 수출을 이끈 주요 부문 대부분이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산업 엔진 고장

30대 기업의 전년 대비 매출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1%,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에는 7.67% 늘었지만 2015년에는 오히려 1.88% 줄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했던 때보다 도리어 못한 것이다.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반도체만이 예외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산업 엔진이 꺼져 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조선업을 들 수 있다. 한 때 조선업체 세계 1위에서 7위까지 모두 한국 업체가 차지한 적이 있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빅3는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강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던 한국 조선업이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더니 2위 자리마저 17년 만에 일본에게 내주고 말았다.

대외 환경 악화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생산성 저하에 있다, 기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초 체력이 약해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대기업들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시장 독과점과 비정규직 양산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지금 그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금융 경색 심화

금융이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시장을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 사회적 양극화는 금융에서의 극단적인 양극화로 이어졌다.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누적이 위험 수위를 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1000조원 가까운 시중 부동자금과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이 쌓여갔다.

가계부채 누적은 소비 감소와 내수 시장 위축을 초래했다, 이는 고스란히 시중 부동자금과 대기업 사내 유보금의 투자 여지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최종 결과 화폐 유통 속도가 지난 25년의 평균에 비해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른바 ‘돈맥경화증’ 증세가 만연된 것이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피가 돌지 않자 온몸이 마비되는 중병에 걸려 버린 것이다. 이 와중에 사회적 양극화의 집약적 결과인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한국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섰고, 가구당 평균 부채도 6,655만원에 이르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은 ‘한계가구’를 160만 가구로 추산한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 소득의 40퍼센트를 넘는 ‘고위험 채무가구’들이다. 가구당 평균 가족 수 2.9명을 곱하면 460여만 명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셈이다.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뜻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작년 기준 26.6%에 달했다. 별어서 손에 쥘 돈이 100만이라면 27만 원 가량을 빚 갚는 데 쓴다는 뜻이다.

넷째,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

2016년 한 동안 상대적으로 잘 돌아간 분야가 부동산이었다.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치솟는 전세가로 인해 저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가 많은 결과였다. 또 하나는 오갈 곳을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많이 몰린 결과이기도 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수급 불균형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올해 접어들어 주택 시장은 확연히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 예정이다. 아파트의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경우 수요는 27만 가구인데 공급은 그보다 10만이 많은 37만 가구에 이른다. 내년 까지 내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앞으로 2년간 단독·다세대까지 합치면 124만 가구가 지어지는데 수요는 77만 가구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한국 경제를 파국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국 경제가 틀과 운영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해 왔다. 곳곳에 켜져 있는 빨간불은 혁신적 전환을 지시하는 신호이기도 한 것이다.

3) 요동치는 한국사회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신(新)신분사회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다.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0퍼센트 이상이 신분 상승이 차단되었다고 보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흘러간 옛 이야기로 전락해 버렸다. 성공의 사다리는 걷어 채인지 오래이다.

마땅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불신과 냉소가 만연되었다. 헬조선 등의 용어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며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촛불시민혁명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연대하면 능히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로부터 국민 의식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지난해 12월 28~30일 실시) 결과 '조기대선이 열리면 투표할 생각입니까' 라는 질문에 20대의 92.2%가 '투표하겠다' 고 답변했다. 역대 대선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었던 50대(82.3%)와 60세 이상(84.1%)의 투표 의향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이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국민 의식이 상당히 혁신지향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8%가 '저성장 해도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나누는 나라'를 꼽았다. 또 '경제가 축소되더라도 빈부 격차는 전혀 없는 나라'를 고른 응답자(29.9%)가 '빈부 격차가 커지지만 고성장하는 나라'를 원한다는 대답(14.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2개 중복 응답)으로 양극화(44.9%)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 주세요.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와 청년실업(43.4%)을 꼽았다 또한 '기존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 모델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61.1%가 '유효하지 않다'고 대답했고, 33.4%만이 '유효하다'고 답했다.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응답이 주류였다.

촛불시민혁명을 액면 그대로 혁명으로 표현하는 것도 결코 낯설지 않은 장면이 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 2017년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탐색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정리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너무 많은 과제와 씨름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 한 복판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는 딱 하나이다. 불평등 심화이다.

전 세계적 범위에 걸쳐 불평등은 최고 부자 8명이 하위 36억 명과 맞먹는 재산을 갖고 있을 정도의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 불평등 심화는 우리가 액면 그대로 경험하고 있듯이 경제 체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평등 심화의 끝은 공멸인 것이다. 보수 성향의 다보스포럼이 불평등을 향후 10년 동안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 요소로 간주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에 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2차 분배 수단인 조세와 3차 분배 수단인 복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둘은 여전히 유효하기도 하고 절실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에만 의해서는 온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우위 시대도 갔다. 세계화 국면에서 기업은 유리한 곳을 골라 자유롭게 이동해 왔다. 추가증세를 용이하게 했던 장기 고도성장도 마감되었다.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황금기를 누리던 시절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사회경제 구조의 혁신적 재구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 역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 사고와 실천이 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민혁명은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국면을 탐색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함께 해주기 바란다. ✨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2017 새사연 전망 보고서 목록

분야	날짜	제목	작성자
노동	1월 9일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송민정
복지	1월 16일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최정은
국내외 정세	1월 23일	국내외 정세, 대전환을 탐색하는 2017	박세길
세계경제	2월 3일	추후 공개	송종운
마을	2월 6일	추후 공개	강세진
부동산	2월 10일	추후 공개	권순형
보건의료	2월 13일	추후 공개	고병수
소득불평등	2월 17일	추후 공개	김창근
종합	2월 20일	추후 공개	송종운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 주세요.